

불자 세상보기

통계청 사망원인 조사 "30대-차 40대-간질환 50대-뇌혈관질환 가장 많다"

건강한 삶 '버릴 줄 아는 용기' 서 나온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유혈분쟁 타개를 위해 미국 등 25개국의 긴급 정상회담이 17일 열려 2주 일 이상 계속되는 폭력을 종식하고 중동 평화회담을 재개하자는 데는 일단 합의했다. 하지만 양국 지도자들이 공식문서나 성명에 서명하지 않아 유혈사태가 확실히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전쟁은 인류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큰 죄악이다. 이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화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경전의 말씀을 들어본다.



전쟁과 평화

인내는 나와 남을 구한다

부처님께서 코삼비국의 코시타 동산에 계시 때였다. 그 때 구심이란 비구는 항상 싸우기를 좋아해서 육을 하며 칼이나 몽둥이를 잘 휘둘렀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아침 구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비구들은 싸우지 말고 서로 시비하지 말라. 너희들은 한 스승 밑에서 배웠으니 서로 화합하기를 우유와 꿀이 잘 섞이듯 하라." 부처님께서는 옛 인연담을 이끌어 말씀하시면서, "남의 잘하는 것도 보지 말고, 잘못하는 것도 보지 말라"고 하셨다. "서로 치고 싸우지도 말고 말로 다투지도 말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겨 모든 생명에게 근심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항상 칭찬하는 것이로다." (중일아함경)

만일 성냄과 원한을 가지고 저렇게 대중을 어지럽히는 것이 있거든 마땅히 화합(和合)한 중을 모아 널리 방편을 베풀어 이 다름의 근본을 뿌리 뽑아라. 만일 맺힌 원한이 이미 다했거든 마땅히 그 마음을 모아 다시 일어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비구들이여, 성내고 뒤늦어서 자상하지 못하고 인내하며 집투하고 교활해 스스로 자기 소견에 빠져 그릇된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 (중집경)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형제·부부·가족·안팎의 친척 사이에 서로 경애하여 미워하지 않으며, 유무상통(有無相通)하여 싸우는 일이 없으며, 말과 안색이 늘 화평하여 서로 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량수경)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범부는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다름을 일으켜, 진실하다니 진실하지 않다니 하는 대립관념에 빠져 있기 일췌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 다름을 일으키는 일을 만들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현상세계의 실상을 살피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승사유범전소순경)

이와되거나 좋은 것을 남에게 양보하고 순해 되는 것을 자기에게 향하게 하면 다름과 분쟁이 없어진다. (열반경)

인내는 자타(自他)의 평화를 낳는다. 자신이 노여움의 과실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으면 자기를 평화롭게 함이요, 이미 분해하고 원망하지 않는다면 남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니, 이는 바로 남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다. (섭대승론)

아난이 존나라는 사문에게 말했다. "외도(外道)가 분쟁을 일으키려 한대도 같이 싸우지 말라. 분쟁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이 이롭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고뇌를 맛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天人)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뇌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사상연경)

서른 잔치는 끝났다고 한 어느 시인의 시처럼, '운동보다도 운동가를, 술보다도 술마시는 분위기를 더 좋아했으나 지갑을 챙기고 제각기 신발을 찾아 신고 떠난' 30대. 스트레스를 술과 함께 삼키고, 담배로 피워 날리며, 운동을 멀리해 온 그들은 40·50대가 되어서야 자신의 건강에 빨간 불이 켜져 있음을 안다. 그러나 빨간 신호등 앞에서도 맹렬하게 질주하는 중년의 사내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999년 사망원인 통계조사'에 따르면 30대는 교통사고, 40대는 간 질환, 50대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같은 사망원인의 분포는 주로 남성들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40·50대 남자의 사망률은 여자보다 3배나 높았다. 우리나라 40·50대 중장년층 남성의 삶은 험악한 질주 속에서 하루하루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30대 사망원인 1위인 자동차 사고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거나 술에 취한 채 걷다가 차에 들어 받히는 게 대부분이라고 한다. 40대 사망원인 1위인 간 질환은 30대부터 퍼마시기 시작한 술의 폐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고, 50대에 들어서서 간 질환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담배의 해악이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중풍 등 뇌혈관 질환의 공포도 시달리게 된다. 결국 연령별 사망원인 1순위는 스트레스와 과음, 과다한 흡연, 그리고 음주와 흡연을 통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는 그릇된 습관이 밑바탕이 깔려 있는 것이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한국 남성들은 꽤 동정받을 만하다. 직장생활에 들어서는 30대부터 50대까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만성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온갖 병을 얻고, 그것도 모자라 사회로부터 냉대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니 충분히 그럴만도 하다. 하지만 저간의 사정이 그러할지라도 당연히 질타는 따라야겠다. 아니 불쌍한 그들의 삶을 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항변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작 자기 속에 숨어 있는 짐작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탓하지는 않는다. 30대의 젊음은 20대처럼 무모하지 않은 이성적인 힘이 있다. 스트레스를 자기발전의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이지(理智)의 힘이 있다. 스트레스를 벗기 위한 음주가 교통사고로 이어진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해야 할 텐데 결코 그렇지 않다. 문제는 자기 통제력인 것이다. 40대는 불혹(不惑)이라 했다.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치받는 샌드위치 신세지만 삶의 맛을 낼 줄 아는 지혜가 있다. 50대에는 세상을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다. 세상이치가 다 그런 것이라고 조롱해볼 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항변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작 자기 속에 숨어 있는 짐작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탓하지는 않는다. 부처님은 "진실로 내 것이 아

니면 버릴라"고 했다. 과도한 욕심과 집착은 결국 정신과 육체를 황폐화시킬 뿐이다. 부처님은 묻는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눈·귀·코·혀·몸·뜻(意)은 영원한 것인가 아닌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괴로운 것인가 아닌가?" "괴롭다면 괴롭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무리 집착해도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버릴 줄 아는 용기", 그것은 힘겨운 삶의 이념에 감춰진, 아니 스스로 감추고 찾지 않은 건강한 삶의 방식이다. 스트레스보다, 폭음과 과도한 흡연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버릴 줄 아는 용기'를 '포기'로 여기는 착각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nia.com)

남북화해시대 불교의 역할

정려 조계종 포교원장 "불교문화 토대 민족공동체 복원"



우리는 지금 남북화해시대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역사적 과제인 화해와 평화의 시대, 통일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있어 우리 민족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있다. 이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민족이 소중하게 1천6백년 이상을 전승해 온 불교문화다. 그동안 누락된 남북간의 이질감을 해체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민족공동체의 가치복원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족문화의 종핵이라 할 수 있을 불교문화를 토대로,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종단차원의 새로운 남북교류 및 통일운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첫번째 요건으로는 불교이념의 재정립이다. 불교는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단호히 대항하는 호국불교의 정신을 보여주었다. 이를 기반으로 통일시대로의 순항을 위한 새로운 이념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로는 불교계의 남북교류 활성화다. 남북을 하나로 묶어주는 데 있어 불교가 차지하는 위치를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필요가 있다. 교류에는 인적교류와 물적교류가 있는데, 인적교류로는 우리 불교계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간의 주요 인사 상호방문, 법요식의 통일, 교리에 대한 의견 교환, 승려의 교육지원 등이 가능한 것이다. 물적교류로는 성보의 교환 전시, 불교관련 서적의 공동번역, 용어와 통일, 불교학당의 설립, 교재 지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는 북한지역 내 사찰의 복원사업 지원이다. 북한 불교에 대한 접근은 민감하지 않은 비정치적인 부분에서부터 착수함으로써 신뢰를 서서히 쌓아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대북지원사업이다. 동체대비 차원에서 범종단적으로 지원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공동선언 실천 한반도 냉전청산"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실들, 즉 6·15 남북공동선언의 내용이 무엇을 말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에 따른 정세 변화를 생각해야 한다. 우선 공동선언문의 첫째 항목인 통일문제의 주제적 해결에 대한 부분이다. 이 말은 주한미군 문제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좁혀진다. 즉,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한·미·일 공조체제와 북·중·러 공조체제의 대립이 깨지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공조체제의 강도를 점차 약화시키고 남북공조체제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지혜가 요구된다. 둘째 항목에서 남북의 연합제와 북쪽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남북이 통일방안에도 합의했음을 말하며, 그것은 또 세계적 냉전체제가 무너진 후에도 남아 있었던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청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연합제와 연방제의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것은 남북 두 정부가 외교권·군사권·내치권을 그대로 가지되 정상회담과 각료회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통일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한다고 하겠다. 셋째 항목에서 '인공관개사업과 전력의 공급'은 이같이 이루어졌지만, 이산가족 면회와 지속시키는 문제와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도 각료회담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넷째 항목의 '민중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남북의 정부자금과 민간자금을 적극적으로 원조하는 등 북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통일 과정을 단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병조 동국대 교수 "화쟁사상으로 조화-평화-통일"



원효스님이 말한 화쟁은 양자의 대립을 복식시키려면 그 양자를 초월해야 한다는 의미다. 즉 어느 특정한 이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원효스님의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이 말하려는 것이 바로 이점이다. 현실적인 이해관계와 대립모순을 십문(十門)으로 나누고 그것을 화쟁하는 논리에 서며, 원효스님은 '일심(一心) 화복'을 그 방편으로 보았다. 이때의 '일심'은 곧 '일승'이다. 수평적 의미로서의 '하나'가 아니라 조화, 평화, 통일의 '하나됨'이다.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통일 방안은 다양하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 통일 방안은 자각적(自覺的)이며, 평화적이며, 이타적(利他的)인 마음의 통일이여야 한다. 불교에서는 그 이상을 견화동해(見和同解·마음으로 화합하다), 신화공주(身和共住·몸으로 함께 살라), 구화무쟁(口和無諍·말로 다투지 말라), 의화동사(意和同事·뜻으로 함께 하라), 계화동수(戒和同修·몸으로 함께 닦으라), 이화동균(利和同均·이익을 함께 나누라) 등의 '육화가(六和歌)'로 요약한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견화동해'와 '이화동균'이다. 견해를 같이한다는 것은 동질성 회복이며, 이익을 함께 나누는 것은 경제협력이다. 특히 견해를 같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불교계가 '자각적·이타적·평화적·공동체적'인 화쟁사상으로 상호 불교성지 순례 등이 이뤄지고, 불교유적지의 공동 발굴이나 보고서 제작, 세미나 개최 등도 고려해 볼 만하다. 불교는 북쪽 국민들에게 민족 종교로서의 동질감, 문화체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조화와 관용의 원리라는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종교다. 이제 불교는 원효스님의 화쟁사상이 삼국통일의 밑거름이었던 과거를 거울 삼아 보다 창조적인 통일 논의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Advertisement for '365일 벽에 걸린 달력' (365 Days Wall Calendar). It features a grid of 365 small images representing Buddhist themes like '동자승의 세계' (World of the Young Monk), '산사의 향기' (Scent of the Mountain Temple), '영화의 세계' (World of Movies), etc. The calendar is available in two sizes: 30x31cm for 1,600 won and 26x26.5cm for 1,400 won. It includes a list of 19 them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Gamrogiwon.